

## 1979

## 디자인진흥원사

- 센터 심볼마크 및 사색(社色) 제정
- 농산물 포장 규격 제정(포장시험실)
- 군수품 포장 규격 국산화 연구(포장시험실)

## 한국 디자인사

- 『월간 디자인』 제1회  
《BIM트리엔날레》 개최
- 한국인테리어디자인협회  
(KOSID) 창립
- 오리콤 설립

## 한국 사회사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관
- 한국종합전시장(코엑스) 개장
- 국내 첫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개장(롯데리아)
-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 수출 150억 달러 돌파

국산 디자인 수출:  
한국종합전시장 개관

우리나라는 1950년대 내내 피폐화된 전쟁의 흔적들을 복구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았다. 정부는 1957년 「무역법」을 제정하여 수출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토와 마른 멸치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출결손액 보상<sup>23</sup>과 같은 수출 촉진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1959년 수출액은 1,90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농수산물, 광산물 등 1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60년대는 이러한 상황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시기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66년 한국 수출산업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대통령 주재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61년 4,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달러, 1977년에는 100억 달러, 1979년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했다. 내용 면에서도 1970년대 초 1차 생산품 위주의 수출품이 1970년대 말부터 공업 제품 수출 체제로 전환되고 경공업 분야부터 중화학·기계공업 분야까지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1979년 7월 3일 열린 한국종합전시장(현 코엑스) 개관식은 1970년대를 마감하며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무역협회 부설 기관으로 서

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진 한국종합전시장은 대지 면적 3만 9,568평, 연건평 8,3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 개관 전시로 마련된 《한국상품특별전》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제품과 수출 공산품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고도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수출 지원 정책도 점차 축소되었다. 그에 반해 수출은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품목도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기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국산 자동차는 1970년대 후반부터 수출을 시작해 1986년에는 미국시장으로 진출했고, 2014년에는 306만 대를 수출해 489억 달러라는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은 세계 수출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1



2

1 1979년 한국종합전시장 신문 광고(위)

2 1979년 한국종합전시장 개장

(박정희대통령 한국종합전시장 시찰)

출처: 공보처, 관리번호 CET0024981(아래)